

DMZ 평화둘레길 열린다...정전 후 첫 민간 개방

27일 고성 7.9km부터 시범운영...철원·파주 42km 단계적 개방 정부 "북한에 아직 통보 안 해...DMZ 내부 시행할 때 통보 검토"



금단의 땅 비무장지대(DMZ)가 둘레길로 개방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국방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DMZ와 연결된 3개 지역을 가칭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27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 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이달 말 GOP(일방전초) 철책선 이남 고성 지역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상설운영 시작 시점은 미정이다.

정부는 애초 이달 말 3곳 모두 개방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해 고성지역만 시범운영 쪽으로 선회했다. 이는 민간인 신변안전 보장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 정부는 파주(임진각-도라산 전망대-철거 GP)와 철원(백마고지 전적비-DMZ 공동유해발굴 현장-화살머리고지 비상주GP), 고성(통일전망대-해안철책-금강산 전망대) 등 3곳을 DMZ 평화둘레길로 조성하고 이달 말 모두 개방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일 "상설 운영 시기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레길 총연장은 고성 7.9km가 확정됐고 파주와 철원은 각 20km, 14km 정도의 계획이 잡혔으나 변동 가능하다.

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도보 2.7km 구간으로 조성한다.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왕복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5.2km 별도 코스도 있다.

고성 구간은 철원, 파주와 달리 DMZ 외부 코스로만 꾸려졌다. 철원과 파주는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포함한 예정이다.

정부는 고성 구간에서 도보 코스 1일 2회 각 20명, 차량 코스 1일 2회 각 80명 등 하루 총

200명이 오가도록 해 주 6회 운영해볼 방침이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코스다. 파주는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해 철거한 GP 현장까지 방문하는 구간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DMZ를 따라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탐방길 연결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될 예정이다.

개방 지역은 군사적지역이자 접경지대인 만큼 관광객 안전이 주요 현안이다.

방문객들은 민수용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 받고 우리 군의 경호 지원을 받는다. DMZ 내 방문객 출입과 안전조치 등에 대해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남 우리 DMZ에서 하는 것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북한에 통보한 사항은 없다"며 "그러나 여러 국민의 안전이 달린 만큼 DMZ 내부에서 시행할 때는 다양한 경로로 북한에 통보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 경제초소와 가장 가까

운 둘레길까지의 거리는 파주 1.2km, 철원 1.9km, 고성 1.6km 정도"라며 "지금 운영 중인 여러 안보경학장도 가까운 곳은 그 정도 거리인데 1km가 넘는다는 것은 소총 유효사거리를 벗어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태 보존을 위해 기존에 사용 중인 도로나 철책길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고 인위적 손질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래종 유입이나 야생동물 이동 저해 등 생태적 영향을 줄일 조치를 병행하고 무인조사 체계를 구축해 환경 영향을 모니터링한다.

정부는 이 사업의 환경적 영향이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두루미의 철원 지역 월동 기간인 10~3월은 운영을 제한하는 등 보존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첫 시범 지역인 고성 방문 신청은 행안부 DMZ통합정보시스템 '디열지기', 한국관광공사 걸여행행 홈페이지 '두루누리'에서 오는 11일부터 접수하며 추첨으로 참가자를 결정한다.

길의 정식 명칭은 대국민 명칭 공모로 이달 중 최종 선정한다.

/임동욱 기자 tuim@연남뉴스

경찰·국방부, 71년 만에 4·3사건 "유감, 애도"

이낙연 총리 "4·3의 진실 채우고 명예 회복해 드리겠다"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이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국가추념식으로 거행됐다.

특히 이날 당시 제주 4·3 진압에 나선 군경 수뇌부가 깊은 애도와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했다. 국방부는 71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민갑용 경찰청장이 민간에서 주도한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전달한 것도 처음이다.

"다시 기리는 4·3정신, 함께 그리는 세계 평화"를 주제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이날 추념식에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도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각계 인사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는 12년 만에 4·3 추념식에 참석했는데 이어 올 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추념사를 낭독하며 4·3 영령을 추모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여야 5당 지도부, 원희룡 제주지사 등도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도민을 위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추념사에서 "제주도민은 4·3의 상처와 미움을 용서와 화해로 꽃피웠다"며 "제주의 용서와 화해는 감동과 교훈을 줬다. 우리 사회에서 과거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갈등을 치유하는 데 좋은 거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4·3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의 완성을 역사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도민 여러분이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며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실종자 확인,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국방부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3일 "제주4·3특별법의 정신을 존중하며 진압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서주석 국방부 차관 명의가 아닌 '국방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가 4·3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민갑용 경찰청장도 이날 "4·3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모든 분들의 영정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정장은 이날 오전 서울 평화문광장에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71주년 제주



민갑용 경찰청장이 3일 오전 서울광장에서 제주4·3 제71주년을 맞아 열린 '4370+1 봄이 옵니다' 추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3항쟁 평화문 추념식'에 참석해 이러한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민 정장은 '애도 표한 것을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에게는 분명히 사죄를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4·3사건은 1947년 3·1절 기념식 발표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000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좁은 섬에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그 후유증을 극복하고 진상규명을 하는 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다.

정부는 4월 3일을 2014년 국가기념일인 '제주4·3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국가의례로 추념식을 병행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남뉴스

전통어로방식 '어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전통어로방식 '어살'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 습성 등을 토대로 어구를 설치해 고기를 잡는 전통어로방식 '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 138-1호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전통어로방식 '어살'은 어촌 지역 대표적인 어업문화로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물러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한다.

어살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역사가 오래된 보편적인 어업 방식이다.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 수심 등의 자연조건과 조선 후기 상업 발달에 따른 해산물 수요 증가로 '어살'의 변형이 이뤄졌다. 그에 따라 서해안에서는 주벽(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 장살 등이 나타났다.

김홍도의 '김홍도풍 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실린 '고기잡이'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어살'은 조선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살을 포함한 전통어업방식은 쇠퇴했다.

다만 어살은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기보다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어살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며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 습성 등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녹아 있어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임야·단독심

바로잡니다. 010-6834-7400/지분물건 환영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완도전북주식회사는 전북 등 수산식품의 수출진흥 및 전북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완도전북주식회사의 미래를 열어갈 역할을 갖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모분야 및 자격요건

공모직위	직급	모집인원	임 기	자격요건 등
이사	대표이사	1명	3년(연임가능)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사내 이사	생산·관리 분야 1명	3년(연임가능)	
	영업·마케팅 분야 1명			
- 전형절차 공모→서류 및 면접심사→합격자 선정→주총 결의

공모 및 원서 접수기간	구 분	일 시	비 고
2019. 3. 28(목) ~ 2019. 4. 16(화) 18:00시	서류전형	2019년 4월 중	자체 심사기준
	면접전형	2019년 4월 중	서류합격자에 한해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
2019. 4. 16(화) 18:00시	합격자 선발	2019년 4월 중	회사 홈페이지 공지
	주총 의결 후 합격자 확정	2019년 5월 중 (예정)	개별통보
- 제출서류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
- 제출방법 우편, 방문 및 이메일 접수
가. 우 편 : 전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8길11, 완도전북(주) (임원추천위원회)
나. E-mail : abalonekr0401@naver.com
- 기 타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회사 및 완도군청 홈페이지 "완도전북(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공모" 참조바람

2019년 3월 28일
완도전북주식회사 임원추천위원회